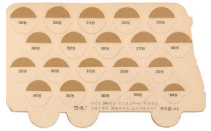


1960-현재 경제개발기 및 금융변혁기의 은행



한국상업은행
버스 저금통

1962년 경제개발계획 발표와 동시에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금융기관을 개편하였다. 정책 금융을 담당하는 특수은행과 지방은행에 이어 외국계 은행까지 받아들이며 경제 발전에 힘을 더했다. 1970년대 중반에 은행의 자율적인 경영이 허가되자 은행은 다양한 금융 상품을 선보이며 고객유치에 나섰다. 더불어 해외 지점 개설, 해외 증권 투자 등 국제 금융 업무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1997년 외환 금융위기로 인해 금융 산업의 대대적인 구조 조정이 실시되었고 은행 간의 합병이 이루어졌다. 이때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은 주도적인 합병을 통해 지금의 우리은행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오늘날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재도약 하였다.



고객 순번표



한일은행 저축예금통장

저금통 갤러리

저금통은 어린이들에게 단순한 장난감을 넘어 올바른 저축 습관을 길러주고 생활 경제 개념을 알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은행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는 저금통은 그 나라의 문화, 시대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왔다. 우리은행은 1995년부터 세계 여러 나라의 저금통 구입을 시작으로 특별하고 진귀한 저금통 6,000여 점을 수집하였고, 각국의 다양한 저금통을 비교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2011년 저금통 갤러리를 개관하였다. 저금통 갤러리에 전시된 여러 나라의 개성과 문화를 담은 가지각색의 저금통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느껴볼 수 있다.



움집



축구



뮤직박스



금고



황금마차

우리나라 최초(最初) 은행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나라 1등 은행

우리나라 최대(最大) 은행
세계로 뻗어나가는 금융한류 선도 은행

우리나라 최선(最善) 은행
꿈을 키우고 희망을 나누는 은행

우리나라 최강(最強) 은행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에 공헌하는 은행

우리나라 최고(最高) 은행
민족금융의 정통성을 세운 믿음직한 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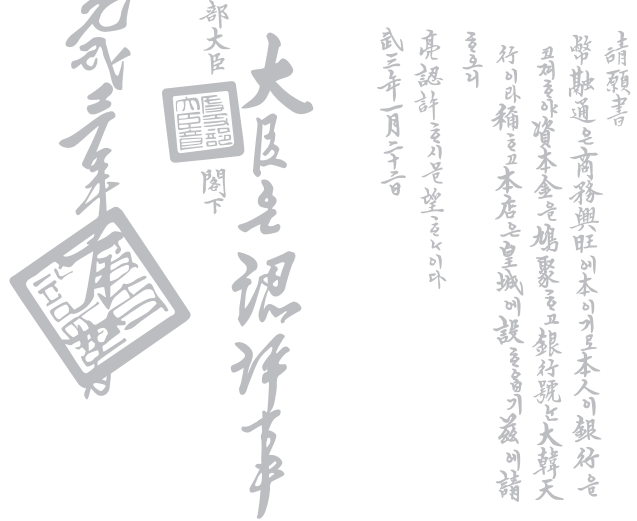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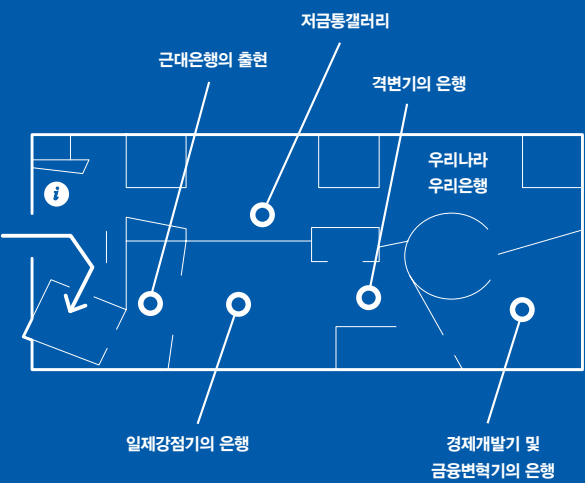
우리은행 및 은행사박물관 주요 연혁

- 1899 우리나라 민족정통은행 '대한천일은행' 창립
- 1909 우리나라 최초 근대식 은행 본점 '광통관' 신축 (現 종로금융센터)
- 1911 대한천일은행 '조선상업은행'으로 명칭 변경
- 1932 조선신탁주식회사 창립
- 1937 조선중앙무진회사 창립
- 1950 조선상업은행 '한국상업은행'으로 명칭 변경
조선신탁주식회사 '한국신탁은행'으로 명칭 변경
조선중앙무진회사 '한국상공은행'으로 명칭 변경
- 1954 한국신탁은행, 한국상공은행 합병 '한국흥업은행'
- 1956 증권거래소 제1호로 주식 상장
- 1959 한국상업은행, 숙녀 금고 개설
- 1960 한국흥업은행 '한일은행'으로 명칭 변경
- 1968 시중은행 최초 일본 동경에 해외지점 설치
- 1999 한국상업은행과 한일은행 합병 '한빛은행' 출범
- 2002 한빛은행 '우리은행'으로 명칭 변경
- 2004 우리은행 은행사박물관 개관
- 2009 은행사박물관 소장 대한천일은행 관련 문서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79호' 지정
- 2011 저금통갤러리 확장 개관
- 2014 은행사박물관 소장 대한천일은행 관련 문서 '국가지정기록물 제11호' 지정
- 2021 은행사박물관 VR 온라인 전시 개시
우리은행 완전 민영화

우리은행 은행사 박물관

우리은행 이행사박물관

우리은행 은행사박물관은 대한민국 근현대 금융의 역사를 보여주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함께 발전해 온 은행의 업적을 재조명하기 위해 2004년에 개관한 국내 최초의 은행 역사 박물관입니다. 은행사박물관은 우리은행의 뿌리인 대한천일은행의 창립문서와 회계문서를 비롯하여 지난 120여 년 동안의 경제 발전의 발자취를 살펴 볼 수 있는 금융 관련 유물을 소장 전시하고 있습니다. 은행사박물관은 각종 문서와 더불어 은행 임직원들과 고객들로부터 기증받은 유물이 함께 전시되어 있어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은행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체험해 볼 수 있는 문화공간입니다.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항구가 개방되면서 외세 자본과 함께 외국계 근대은행이 우리나라에 진출하게 되었다. 일본은행들의 조선 경제 침략이 점차 본격화되자, 외세 자본에 대응하기 위해 상인들은 민족은행의 설립을 도모하였다. 서울과 개성의 유력한 상인들과 관료들은 고종황제의 황실 자금을 지원 받아 1899년 '하늘 아래 첫째 가는 은행'이라는 뜻을 가진 대한천일은행(현 우리은행)을 창립하였다. 대한천일은행은 일반은행의 역할과 함께 국가의 자금을 관리하는 중앙은행의 역할도 담당하며 일본의 경제적 침략으로부터 우리 자본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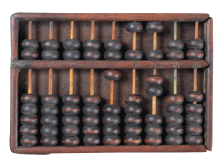
1876-1910 근대은행의 출현



대한천일은행 창립청원 및 인가서(1899)



상평통보



주판



대한천일은행 정일기(1899)

대한천일은행 창립문서 및 회계문서는 역사적으로 중요성을 인정받아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79호, 국가지정기록물 제11호로 지정되었다.

1911-1945 일제강점기의 은행



금융조합 안내전단

일제강점기에 많은 은행이 설립되었으나 일본의 은행령으로 영업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다. 우리은행의 전신인 대한천일은행은 '조선상업은행'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활동 영역도 축소되어 일반은행 업무만 취급하게 되었다. 당시 식민지 중앙은행인 조선은행에서는 조선은행권을 발행하고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을 통제하였다. 이 외에도 경제적 식민통치를 위해 일본이 설립한 특수금융기관으로 인해 우리 경제는 더욱 황폐해졌다. 또한 일본의 압력 하에 경영난이 심한 일본은행과 우리나라 은행이 강제적으로 합병되면서 금융 위기에 빠지기도 하였다.



조선상업은행 정기예금 증서(19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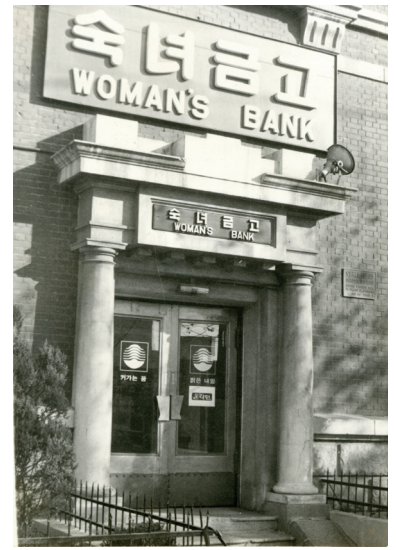
1930년대 은행거리

1946-1960 격변기의 은행

1945년 광복 직후 우리나라는 자주독립을 이룩하였으나, 경제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다.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금융기관과 금융 법규 재정비에 힘썼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으로 다시 경제 상황은 악화되었다. 많은 은행 건물이 파괴되었으며 남북 분단으로 북쪽에 위치한 수십 개의 점포를 잃게 되었다. 계속되는 약재 속에서도 우리은행은 다시금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였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금융기관에 직원을 파견하여 새로운 금융 업무를 도입하는데 심혈을 기울였고, 인제 양성과 은행 체제 재정비, 고객서비스 강화 등 우리나라 금융 발전을 위해 새롭게 변화하고자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수표 발행기



숙녀금고

박물관 이용안내

관람시간

월요일~토요일 10:00~18:00(입장마감 17:30)

휴관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

입장료

무료

관람문의

02-2002-5090, 5093
www.woorimuseum.com
※ 단체관람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회현동 1가)
우리은행 본점 지하 1층

		↑	시청
		한국은행 ●	
남대문시장 ●		신세계백화점 ●	● 중앙우체국
		신세계백화점 신관 ●	● 대연각타워
←			
서울역	회현역 1번출구 SK 리더스뷰 우리은행 본점	회현사거리 명동역 4번출구 남산 3호터널	